

줄잇는 특허절벽 호재… 복제약 업계 ‘황금 대목’ 왔다



[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의 중대한 전환점인 특허 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25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여려 매출 상위 의약품 특허 보호가 만료되면서 한 때 거대 바이오제약사들 기록적 성장을 이끌었던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급격한 판매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특허 절벽(Patent Cliff)이란 제품 특허 보호가 만료되면서 수익이나 이익이 급격히 감소해 경쟁사가 복제약 또는 유사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특히 20년간 독점권을 부여하지만 만료되면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기업에 큰 기회가

2025~30년 블록버스터 약 70개 포함 200개 특허 끝나

2000억~4000억 달러 매출 기회… 유사약 출시 봇물 예상

임상3상 면제… K바이오 기업, 글로벌 경쟁 뚫기 총력

된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블록버스터 의약품(10억 달러 이상의 매출) 70개를 포함해 약 200개의 의약품 특허가 만료돼 2000억~4000억 달러 매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2030년까지 미국에서는 118 개의 바이오의약품 특허가 만료된다. 유럽에서는 69개 바이오의약품 특허가 만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30년 글로벌 바

이오시밀러 시장은 미국 시장 급성장에 힘입어 730억 달러에서 762억 달러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2023년 암젠이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

이었던 애브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암제비티’를 출시했을 때 휴미라 정가보다

55% 낮게 가격을 낮췄다. 휴미라 매출은 특히 독점권 상실 후 2022년 212억 달러에

서 2024년 90억 달러로 급감했다.

브랜드 제약사들은 특히 만료에 대비해 특허 기간 연장, 제형 변경, 적용증 확대 등을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머크는 현재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인 키트루다(KEYTRUDA QLEXTM) 특허 만료에 대비해 피하 주사제 키트루다를 개발해 2025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2028년 특허가 만료되는 키트루다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2024년 기준 글로벌 매출 1위인 키트루다가 2028년 특허 만료되며 매출 4위 듀피젠틴은 2030년, 매출 13위와 20위인 옵디보와 오크레부스는 각각 2028년과 2029년에 미국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들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아직 FDA에서 허가된 바이오시밀러는 없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026년에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개발시 임상 3상을 면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면에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새 기업들이 많이 진입할 수 있어 바이오시밀러 기업간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백해무익 담배… 지금 끊어도 늦지 않아

금연하면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 위험 줄어

뇌졸중·폐암 포함한 각종 암 위험도 점차 감소

연말이 되면 평소에는 지나쳤던 몸의 변화들이 하나둘 느껴진다. 쉽게 가시지 않는 피로감이나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는 순간이 그렇다. 흡연자라면 이런 변화 앞에서 한 번쯤 담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25일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배 교수는 “특히 겨울로 접어들수록 이런 신호는 더 뚜렷해진다. 추운 환경에서는 체온 보존을 위해 피부의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전신혈관저항이 증가한다”며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은 더 높은 압력에 맞서 일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되고 그 결과 심근의 산소요구량도 함께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흡연이 더해지면 심장과 혈관에

가하는 부담이 한층 커진다”며 “니코틴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과 심박수를 상승시키고 심근수축력을 증가시켜 심근의 산소요구량을 더욱 높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부전이 있는 환자는 흡연으로 관상동맥 수축이 발생하면 이미 증가한 심근의 산소요구량에 비해 산소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여기에 흡연으로 생성되는 일산화탄소가 혈액의 산소운반 능력까지 저하시킬 경우 심근 혈관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

금연을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

게 변화를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를 끊은 지 20분 정도만 지나도 혈압과 맥박이 점차 안정되며 하루가 지나면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면서 심장이 받는 부담이 줄어든다. 48시간 이내 후각과 미각이 개선되면서 음식 맛이 좋아진다. 이후 몇 달 동안 혈액순환과 폐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숨이 덜 차고, 9개월 정도면 아침마다 반복되던 기침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금연을 지속하면 장기적인 효과도 분명하다. 금연 1년 후에는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흡연자와 비교해 반으로 줄어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뇌졸중과 폐암을 포함한 각종 암의 위험도 점차 감소한다. 흡연 기간이 길었거나 나이가 많아도 금연의 효과는 나타난다. 금연은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훈자서 참아야 하는 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니코틴 의존은 뇌의 보상 체계와 관련된 문제로 단순한 습관 교정과는 다른 중독으로 이해해야 한다. 금연 과정에서 불안, 조조,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와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부산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 분양

총 1481가구 중 474가구 일반 분양… 29일 특별 공급 시작

특화 조경설계… 전체 대지의 37% 할애 공원형 단지 조성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가 분양에 나선다.

2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동래구 안락동 1230번지 일원 안락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조성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12개 동, 총 1481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74m²A 20가구 △76m²A 15가구 △84m²A 439가구 등 4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 일정은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31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내년 1월 7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1월 19일부터 21일 까지 사흘간 체결된다.

청약 자격은 부산·울산·경남 거주 만 19세 이상으로 세대주 여부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기업기간과 예치금 요건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외관 디자인과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을 포함한 대단지 구성으로 계획됐다. 일부 동에는 옥상 구조

이영훈 기자 yhlee@skyedaily.com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1230번지 일원 안락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가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31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 조간도 대우건설

다시 새겨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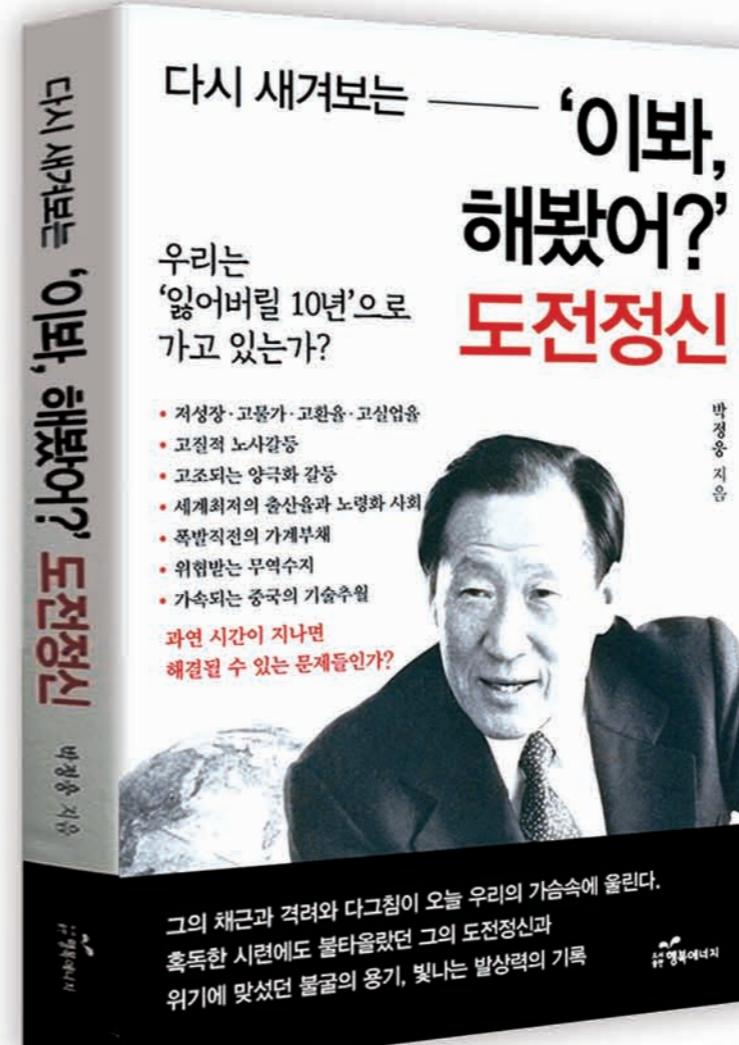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의 위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온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웅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 01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 건설시장
- 04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전시장 조선소
-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 06 가슴에 묻고 간 필생의 열원 통일
-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들

-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밀 담판
- 03 모두 안 된다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상천외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 05 88서울올림픽 유치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가상

-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 02 정치쇄신, 더 잘사는 사회… 통일을 위해 던졌던 비장한 출사표
- 03 평생 노동자의 기슴을 품고 살았던 ‘성공한 노동자’
-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쟁였던 ‘큰손’과 ‘구두쇠’
-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 06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교수가 본 정주영
-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Part 4 인간 정주영

- 01 정주영·이병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 02 만능 엔터테이너 재벌 종수의 18번
-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의 건
-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